

특집
논문

재외동포의 사회운동과 정치적 역동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엄은희 _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

박준영 _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논문 요약

2016~17년을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의 촛불항쟁에는 다수의 국내 시민뿐 아니라 국경 넘어 해외동포들도 폭넓게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촛불항쟁의 국제화 국면에 인도네시아의 재외동포들이 촛불항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탄핵 이후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이란 조직을 결성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조직은 탄핵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정치적 이슈들에 관여하며 재외동포 사회운동단체로 진화해오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촛불항쟁을 통해 새롭게 결성된 재외동포 풀뿌리 시민단체가 글로벌 한인으로서 세계시민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활동의 글로벌 시민운동으로서의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의 결성과 활동의 전개과정을 총 5개 국면으로 나누어 묘사하고 분석한다. 나아가 ‘원거리 민족주의’, ‘먼저 온 통일체험’, ‘세계 시민되기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활동을 해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 주요어: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재외동포, 사회운동, 원거리 민족주의, 세계시민되기

DOI: <http://dx.doi.org/10.31008/MV.41.2>

1. 들어가며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촛불의 물결이란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 뜨겁게 펼쳐졌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항쟁은 서울 광화문을 포함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연인원 1,700만 명(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추산)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당선된 국가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이 비선실세에 의지해 공권력을 사유화한 초유의 '비정상성'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외쳤다. 탄핵 이후에도 촛불의 정신은 이어져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감시하고 참여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시민들의 시공간이 만들어졌다(김동춘 2017; 김윤철 외 2017; 신진욱 2018; 이동연 2017; 천정환 2017; 최종숙 2017; 황진태·박배균 2018; 홍성구 2018 등).

그런데 촛불항쟁은 비단 대한민국의 영토 안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해외의 재외동포들도 다양한 방식의 모임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모국(母國)에서 시작된 촛불의 행렬에 동참하였다. 해외에서 전개된 촛불집회의 형식은 체류 국가의 정치적 상황, 한인사회 규모 및 분위기 등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했다. 일부 해외 지역에서는 이 집회를 계기로 새로운 유형의 재외한인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촛불항쟁 참여를 통해 시민의 역할과 힘을 자각한 이 조직들은 탄핵이란 일차적 목표가 달성된 이후 다양한 주제의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재외동포 풀뿌리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인도네시아의 '416자카르타촛불행

동'이하, 촛불행동JKT)도 이러한 단체 중 하나다. 이들의 활동은 이주의 역사가 길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주 동기가 강한 동남아 동포사회에 서는 매우 이례적인 경험이다.

본 연구는 2016년 11월 자카르타에서 탄핵 촛불을 들었던 인도네시아의 한인들이 촛불행동JKT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현재까지 펼쳐온 활동들을 설명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운동으로서의 함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들의 참여와 조직화의 과정을 '풀뿌리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일차적인 분석 자료는 이상의 활동과 조직화에 참여한 자카르타 한인들과의 인터뷰 및 이들이 생성한 자료들이다. 분석을 통해 '누가, 왜 참여했는가?', '어떻게 참여했는가?',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은 본인의 사고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등을 질문함으로써 이 운동의 주체 형성의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촛불집회 이후 '재내'인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역동성, 한국-인도네시아간의 관계 심화, 재외동포사회의 정치성향 지형과 같은 외적 환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촛불행동JKT 참여자들의 저항과 참여가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재외동포 풀뿌리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밝혀보려 한다.

2. 선행연구와 분석틀

1) 촛불항쟁과 한국사회의 정치변동

(1) 촛불항쟁의 의미와 성격: 가능성의 공간과 착종된 과제들

2016~17년 촛불항쟁에 관해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한편에서는 이를 ‘혁명적 사건’으로 명명하며 과거와는 구별되는 질적으로 다른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김상준 2017; 박성진 2017; 임채원 2017 등),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를 향한 열망’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항쟁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마지노선’(김윤철 외 20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 결과도 ‘정상성의 회복’ 혹은 1987년 체제의 복원에 머물거나 제도정치로 포획되었다며 한계를 지적한다(서영표 2017; 신진옥 2018; 천정환 2017 등). 그밖에 촛불항쟁에 참여한 주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균중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이질적인 복합물이라 해석(이동연 2017)하거나, 촛불항쟁 이후 새로운 운동과 정치의 가능성이 열린 시공간에 주목하는 연구(황진태·박배균 2018)들도 있었다.

(2) 촛불항쟁의 과제와 한반도 평화

촛불항쟁 과정에서 시민들은 ‘비정상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항쟁 이후 변화해야 할 ‘정상적 사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상준(2017)과 백낙청(2017)은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핵심과제로 '한반도 평화'를 제시한다.¹⁾ 사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란 과제는 국내-국제 정치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런데 독특한 자의식을 지닌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과 문재인 정부의 세심하면서도 주도적인 노력의 결합이라는 매우 우연적 조건은 현재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을 펼쳐놓았다.

한반도 평화는 촛불 이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다양한 요구 중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사실 촛불항쟁 기간 중에 주요 구호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촛불 정신의 실현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중 이전 정부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며 동시에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한반도 관계다. 촛불 이후 지난 두 보수정권의 대북 압박 정책과 다르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DJ정부의 '햇볕정책'에서 시작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한반도 관계 개선으로 전환되었고, 북한 또는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물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선수단과 고위급 대표단이 파견되는 스포츠 외교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관계는 2018년 내내 숨 가쁘게 달려왔다.²⁾ 안타깝게 2019년에는 2월의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

-
- 1) 두 학자의 주장은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으로 개념화된다. 현실 인식과 평화 만들기의 방식에서 강조점이 다르지만 촛불혁명을 동력 삼아 혹은 촛불이 궁극적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호 체제의 인정과 평화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
 - 2) 2018년 남북 간의 구체적인 관계 개선 노력을 열거하면 4·27 판문점 선언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쳤고 이후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북-미 1차 정상회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을

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제동이 걸렸었지만,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외의 파격적인 만남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아시아 변영은 한국사회가 성취한 민주주의와 촛불의 요구라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프레시안 2019/06/12).³⁾

필자들이 촛불행동JKT의 활동에 주목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만들기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자카르타 동포사회의 매우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의 장이 다시 한번 열렸다. 흥미롭게 아시안게임 동안 남북 정부 간 접촉과 교류를 넘어 남측의 재외동포와 북측의 재외동포가 제3의 공간인 해외에서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촛불행동JKT는 이 교류의 장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의 활동은 남북통일의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재외동포의 위치와 역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주목할 만한 경험으로 기록될 필요가 있다.

꼽을 수 있다. 필자들은 이밖에도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물밑 접촉이 남북 간 및 남북미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 3)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었던 6월 12일에 유럽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과 평화를 연결지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2)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운동 참여

(1) 재외동포 이주사와 정체성

재외동포⁴⁾의 존재 양태는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경로로 형성되었으며, 이주 시기, 거주국에서의 삶의 방식, 모국과의 관계 역시 차별적이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의 역사는 크게 네시기로 구분된다(윤인진 2013). 먼저 식민시대 강제적·경제적 차원의 이주 시기, 해방 이후 빈곤을 피하거나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이주의 시기, 1962년 이민법의 제정과 이민정책 수립 이후 국가의 통제 하에 해외이주가 이루어진 시기, 1988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유로운 해외이주(국내로의 이입 포함)가 가능했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우리 정부와 구(舊)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국교가 수립됨에 따라 중국의 조선족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좇아 대거 국내로 들어오며 광복 이후 형성이 지연되었던 혈연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 개념이 소환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특이하게도 이 시기 이후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늘어나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도 가속화되었다. 다시 말해, 혈연 기반 ‘민족국가를 향한 구심력’과 다국적거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체류자)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국적 동포를 모두 포함한다. 재외동포, 교민, 재외한인은 각각의 강조점이 다르고 사용례는 용례도 상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호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주자 사회구성체로서의 ‘다문화국가로의 원심력’이 동시적으로 작동한 셈이다. 더불어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 정부의 경제력 신장과 민주적 정통성이 확보되며 재외동포를 영토 밖 국가구성원으로 인정하며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탈 영역화된 국민국가(de-territorialized nation-state) (Basch *et al.* 1994) 관념이 강화되기도 했다.

재외동포 사회의 구성에 있어 글로벌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주형 이주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한국-해외 혹은 해외-해외를 오가는 상업적 이주와 단기 체류형 방문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다문화 심화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사회의 국적, 인종, 문화적 다양성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재외동포 사회가 거주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모국과의 유대강화와 민족 정체성이 강화되며, 다시금 원거리 민족주의(long distance nationalism)(Skrbiš 1999)가 득세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이다.⁵⁾

이 시점에서 재외동포의 생활세계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는 영토 밖에서 민족적 일체감을 체현하고 있는 ‘글로벌 민족 구성

5)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해외 활동이 강화되면서 한국과 현지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동포사회의 역할론에 대한 부상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재외국민과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현지의 한인사회가 한국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는 양상(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코참), 한인여성회(코원), 한국문화원, 세종어학당 등)이 관찰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해외 동포사회에서 모국과의 연결성이 보다 강화되는 경향 역시 발견된다. 예컨대, 재외동포들은 다양한 SNS 채널(카톡, 밴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족적 연결성이 강화되며, 현지 사회의 뉴스나 방송보다 한국의 뉴스와 방송에 대한 노출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원'이지만 동시에 체류국의 다문화적 특성에 기여하는 '구성적 시민'이다. 특히 후자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든 문화적인 측면에서든 현지 사회에 대한 존중과 타종족·타민족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존재론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는 글로벌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체류국의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세계시민적 자세를 함께 추구해야 할 이중적 숙제를 안고 있다(이희용 2018 참고).

(2) 재외동포의 사회운동과 정치참여

이희영(2018)은 독일의 한인 이주여성들의 정치주제화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녀는 문헌자료와 구술인터뷰를 통해 1977~78년 독일의 한인 이주여성들이 서독 정부의 체류 허가 중단 조치에 대하여 전개한 체류권 투쟁의 과정을 고찰했다. 이 과정은 낯선 독일 사회에서 한인 이주여성들이 과거로부터 걸어 나와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고 정치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이주민이 체류국의 구성적 시민으로 정치적 자각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는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과 위안부 동상을 통해 해외에서 시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화되는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있다. 윤지환(2018)과 문경희(2018)의 연구는 각각 미국과 호주에서 위안부 동상을 세우는 한인들의 모습을 조망하는데, 두 연구에서는 이 운동을 모두 한민족의 민족 감정 표출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코스모폴리탄적 기억운동'으로 해석한다. 이들이 말하는 '코스모폴리탄' 기억은 민족-국

가와 연동된 트라우마적 기억이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서 타 국가로 확산되어 현지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낸 기억을 의미한다.

사실 한국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관한 이슈들은 일정 정도 관제화된(혹은 공식화된) 한인단체들보다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풀뿌리 운동을 통해 확산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재외동포의 위치적 특성에서 유래한다. 재외 한인을 비롯한 국외 이주민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적 정체성을 지니며 거주 국가의 장소적 특성과 문화에 적응하길 요구받는다. 이런 점에서 재외동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異)문화를 수용하고 교류하면서 세계시민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적응해야 하는 조건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나라의 동포사회에서는 세월호, 탄핵, 위안부 동상 세우기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동포 조직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들은 종종 체류국 시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족-국가의 문제를 초국적 보편성을 갖춘 세계시민의 의제로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3) 연구대상으로서의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1)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형성과 성장

국내 재외동포사 연구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한인사회는 중국, 일본, 북미 등 주요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현재까지 동남아 한인사회에 관한 연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군인, 군속, 위안부 등)의 역사와 1990년대 이후 기업

진출사 등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1960년대 이후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원목개발을 위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진출을 기점으로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급진전하였다. 이에 힘입어 동포의 수는 1970년대 초 500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가 재편되며, 부산(신발)과 대구(섬유)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다수 옮겨왔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투자 증가, 무역과 건설 수주 확대에 힘입어 교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의 내수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로 전자, 금융, 보험, 운송, 화학, 자동차 등 다방면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한인의 수는 1만 6천 명까지 확대되었다(엄은희 2018).

2000년대 이후는 국가 간 관계를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연간 30만 명을 넘어서며, 한국을 찾는 인도네시아인들도 2010년 이후 연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인도네시아 재외동포의 규모는 약 3만 1천 명(영주권자 약 4,000명, 일반 체류자 2만 5,600명, 유학생 약 800명)이다. 여기에는 사업상 편의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600여 명의 동포도 포함된다(외교부 2017).

(2)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특성과 촛불행동JKT의 차별성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고, 한인사회는 사업 종목과 경

제적 이해관계를 고리로 밀도 있게 연결되어있다. 이처럼 한인사회가 경제 관계 중심으로 구성된 까닭에 자칫 분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일은 극도로 경계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분란이 없는 화목한 사회’라 평하고, 다른 일부는 답답함을 느끼는 요인이라 말한다. 2016년 말 이전까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한인단체들은 공식적인 한인회와 경제단체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여성과 가족 커뮤니티 및 동호회 중심의 교육문화/예술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진 자발적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다.⁶⁾

탄핵 이후 소위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구조는 현재 우리 사회의 큰 갈등 원인이다. 상호 대립하는 양측은 촛불항쟁, 그리고 탄핵과 정권 교체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며 타협 불가능한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촛불항쟁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소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는 한인사회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폐쇄성 때문에 국내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촛불 시민들은 비정상 집단을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촛불 시민들은 탄핵의 대상과 이를 지지하는 집단이 ‘이름을 거명할 수 있을

6) 물론 모든 한인이 한인사회에 소속감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한인사회의 공식기구들은 주류 기업인들과 원로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한인사회와 부러 거리두기를 하는 그룹들도 상당하다. 신성철(2017)에 따르면 통신기술의 발달과 세대 전환으로 한인단체의 세분화와 느슨한 조직화가 진행 중이다(테일리 인도네시아 2017/12/15).

정도로' 구체적인 특정인들의 네트워크로 인식되곤 했다고 고백한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곳곳에서 충돌 예견대, 한인단체 카톡방 내 논쟁과열과 폐쇄 등이 탄핵 정국 외중에는 수시로 발생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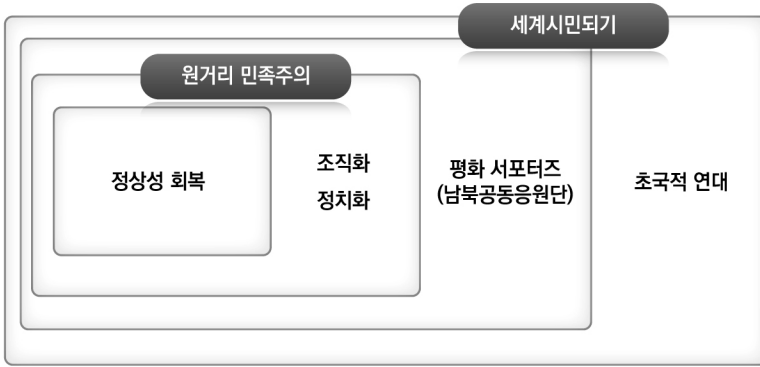
3) 분석 대상과 분석 틀

이 연구는 민족 단일 범주의 한인 연구의 한계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새로운 분화를 보여주는 소집단인 촛불행동JKT의 활동과 변화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민족 단일 범주 해외 한인 집단 또는 한인사회 전체 분석 연구는 재외 한인사회의 분화 현상이나 특정 소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특수성에 대해 이전에 연구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목적의식을 공식화하며' 조직된 신생 한인 풀뿌리단체의 활동을 분석하여 기록으로 남길 가치는 충분하다 여겨진다. 이 단체의 활동 내용은 촛불행동JKT로부터 제공받은 활동기록 및 자료, 촛불행동JKT의 활동을 보도한 언론 기사, 구성원 인터뷰와 촛불행동JKT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공동 필자의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했다.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촛불행동JKT의 활동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동원한

7) 일례로 촛불행동JKT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의 장소를 제공한 한인 식당에 더 이상 해당 식당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전화 연락이 오는가 하면, 촛불항쟁에 참여한 유학생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오마이뉴스 2017/02/13).

두 가지 이론적 자원은 ‘원거리 민족주의’와 ‘세계시민되기’이며, <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416자카르타촛불행동’ 분석틀



3.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의 결성과 활동의 전개과정

1) *Sudah Cukup! Malu Selkali!*: 개인의 각성과 집회의 실천

6개월간 지속된 촛불항쟁은 한국 시민들이 개인적·집단적 계몽을 경험하는 시기였으며 변화를 위한 희망을 스스로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기존 사회운동 주체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퇴진 행동이 주최하는 범국민 문화제로 전환되었다(천정환 2017). 11~12월 사이 촛불의 규모는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였는데, 11월 12일의 3차 집회는 서울에서만 백만 명이 결집하며 전 사회적 현상으로 발현되었다.

‘백만’이란 숫자는 촛불항쟁이 보편적 대중성을 획득하는 데 주효했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 변화는 재외동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세계 각지의 한인 및 한인단체들도 3차 집회(2016.11.12)이자 백만의 뜻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기점으로 촛불항쟁에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의 한인들이 이 3차 촛불문화제에 동행할 것을 선언하며 공개모임을 준비하였다. 오프라인 회동을 겨우 5일 앞둔 11월 7일부터 ‘재인도네시아 한인, 유학생 시국선언 준비모임’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밴드가 만들어지며, 자카르타에서의 공개집회를 준비하게 된 것이 이 활동의 출발이었다.

짧은 홍보 기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모집한 시국선언문 서명 운동(300 Project)에 291명이 서명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유례없었던 정치 행동 참여 규모로 시국선언 현장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리고 11월 12일 한 식당에서 개최된 ‘한인, 유학생 시국선언 모임’ 공개집회에는 약 70명이 참석했는데, 이 규모의 인원은 집회 주최 측과 참석 인원들도 놀랐을 만큼 큰 규모로 기억된다.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던 동포사회였기에 이 규모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그림 2〉 재인도네시아 한인·유학생 시국선언 모임 선전물

재인도네시아 300 Project

한인, 유학생

Sudah Cukup!

시국선언 모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 Arang 22
 Kawasan SCBD Lot. 8, Jl. Jend. Sudirman Kav. 52-53, Senayan,
 Kebayoran Baru,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190

* 300 Project? : 재인도네시아 한인 300명 이상의 시국선언문 서명 받기 운동
 나부터 서명하고 주변의 3명 이상에게 알리기!

재인도네시아 Tolak!

한인, 유학생

시국선언문 서명운동

docs.google.com/forms/d/1FXQEDQILL4po_Bb8T1bxGjYCVi8Iq-z0uyidvhPnm3o

시국선언 발표 모임 : 12일 토요일 오후 5시 @ 아랑 22

자료: 416자카르타촛불행동 네이버 밴드

이 모임이 내세운 구호는 “*Sudah Cukup, Malu Selkali*(수다주꿍, 말루스칼리)” 그리고 “*Tolak*(톨락)”이었다. 인도네시아어로 전자는 “이제 충분하다. 너무 부끄럽다”를 후자는 “퇴진”을 의미한다. 집회 참여자들은 해외 거주 한인으로서 당시 인도네시아 외신에도 자주 보도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본국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한 사회라는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외신과 국내 뉴스로 접한 박근혜-최순실의 ‘비정상적’ 행위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따라서 최초의 직접행동의 목적은 평소 이들이 자부심으로 느끼던 ‘정상성’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에 맞춰져 있었다.

애초 한 차례 집회만 기획되었으나, 참여의 열기를 확인한 참석자들은 이후 몇 차례 더 현장집회를 조직하였다. 두 번째 집회이자 송년회(12월

17일)에서는 간첩 조작사건을 다룬 독립영화 <자백>의 공동체 상영을, 세 번째 집회(2017년 1월 7일)는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집회로, 네 번째 집회(1월 27일)는 당시 자카르타를 방문한 안민석 국회의원과 간담회 및 촛불집회로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 진행된 다섯 번째 모임(3월 11일)은 탄핵 축하파티로 진행되었다. 애초 집회의 목적이었던 ‘비정상’이 해소되고 ‘정상성’이 회복되었지만, 공개 집회를 통해 자신감을 획득한 이들은 이미 세월호와 간첩조작(남북긴장)과 같은 촛불 이후의 의제와 결합하며 탄핵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2) 촛불시민명예혁명, 투표로 완성하자: 정치 참여의 효능감

촛불의 일차적 목표인 부정한 대통령의 탄핵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예고한 절차였다. 촛불행동JKT의 행동은 탄핵 이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미 국내에서는 19대 대선에서도 선거 부정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많은 시민이 선거 감시에 나서던 시기였다(오마이뉴스 2017/03/20).⁸⁾ 촛불행동JKT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국내 선거 감시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도권 내에 자카르타와 땅어랑(Tangerang) 두 곳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8) 최윤석(2017) “‘매의 눈’으로 선거 부정 감시하겠다”(http://omn.kr/msa2)

실시됐는데 총 여섯 명의 구성원이 선거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또한, 재외국민 투표 직전 <촛불시민명예혁명, 투표로 완성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촛불 시민 명예혁명의 목적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건설입니다. 이제 우리 재외 한인 촛불 시민들도 이 뜻을 실현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고 오만한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촛불 시민 명예혁명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가꾸어 갈 역할을 다시 그들에게 맡겨선 안 됩니다. 우리의 봄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사회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당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의 소망을 반영한 결과를 만듦으로, 촛불 시민 명예혁명을 완수합시다.”

<재외국민 투표 독려를 위한 함께 쓰는 성명서>(2017.03.20.)

유례없는 탄핵과 대통령 궐위로 이루어진 조기대선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재외국민 투표는 유권자 등록 및 사전투표(3~6일간)로 치러지는데, 전 세계 116개국에서 29만 몇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최종 투표율은 75.3%로 참여율과 투표율 모두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YTN News 2017/05/01).⁹⁾ 인도네시아에서도 5천 명 이상의 동포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HanInPost 2017/4/11).¹⁰⁾

촛불행동JKT는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과의 만남의 계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촛불항쟁 기간 중 자카르타를 방문한 안민석 의원과의 간담회를 촛불행동JKT가 3차 현장모임과 연동시킨 것이 첫 출발점이었다. 관계자는 이 행사가 촛불 교민들이 “정치적 주체로 나가게 된 계기”로 해석한다. 이들은 먼 곳에서 존재했던 정치인과 직접 대면하여 촛불항쟁 국면의 정세를 토론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주문하였다. 이후에도 촛불행동JKT는 국민방문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특사로 파견되었던 서울시장이나 동행한 국회의원들이 자카르타를 방문할 때마다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중 몇 차례의 간담회는 촛불행동JKT가 직접 주관함으로써, 동포사회에 정치적 주체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체로 정치인과 시민의 만남이 민원(民願)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성하는 것과 대비되게 이 간담회는 당시 현안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논의 내용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이른바 적폐 청산과 관련하여 재외동포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창구가 되었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관(官)으로 대표되는 대사관과 교민의 관계는 양가적이다. 한인회나 상공회의소 등 공식적인 단체들은 대사관과 적극적인 협력과 일상적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교민의 상당수는 비자 문제 등 ‘특별한 필요’가 있지 않은 한 대사관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전통적인 대사관과 주류 동포사회의 관점에서 촛불행동JKT는 매

9) “재외국민 22만 명 투표, 투표율 75% 역대 최고”(https://www.youtube.com/watch?v=IU5vsr6SLsA)
 10) “인도네시아 재외 국민투표 등록신고 5,863명 접수(http://haninpost.com/?p=13019)

우 생경한 조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촛불행동JKT 결성 초기에 대사관과 이 단체와의 관계는 다소 불편했음을 증언한다.

필자: 왜, 초기에 대사관과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졌나요?

P: 첫 모임이었던 시국선언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사관 및 관련 단체에서 촛불행동JKT의 주요 인원들의 정보를 주변인들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어요. 연이 닿아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문제 제기도 했는데, '한인 안전을 위해 새롭게 결성되는 모임에 대해 기본적 정보를 파악하려 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위 한인회 단체를 통해 파악하려 했으니 저희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요.

정권 교체 후 새로 부임한 신입대사와의 관계는 매우 호전되었다. 한편으로는 촛불정부가 임명한 대사라는 점에서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기대하려는 흐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시국선언 후 1년 넘게 그룹을 유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촛불행동JKT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한인 사회의 목소리 중 하나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인과의 만남, 선거 관련 활동 참여, 대사관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이 단체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비록 물리적으로 국경 너머 이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내의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고 다수의 목소리로 문제에 개입하려는 '원거리 민족주의'의 발로였다.

3) 우리의 행동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조직화의 여정

2016년 11월 초 시국선언을 준비하며 만들어진 ‘시국선언 준비모임’(1차 현장집회)은 ‘자카르타 퇴진 행동’(2차 현장집회)을 거쳐 ‘416자카르타촛불행동’(3차 현장집회)으로 단체명을 변경해 왔다. 하지만 이 모임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소셜미디어(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를 통해 구성원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느슨한 형태의 인적 결사체였다.¹¹⁾

“촛불행동은 ‘나와 이웃의 행복을 고민하는 자카르타 민주 시민 공동체’입니다. 자발적 결성, 수평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기존 풀뿌리 시민단체와 성격이 같지만, 기존 시민단체들보다는 형식적으로 좀 더 느슨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때,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우리 활동 내용을 알릴 때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은 현재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을 통해 구성원 간 소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또 온라인 서명 운동,

11) 온라인 모임 위주로 활동이 전개된 것에는 인도네시아어기에 발생하는 특수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세계에게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자들이라도 면대면 모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여전히 한인사회의 원로층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외국에서 지적하는 것은 나라 망신시키는 일이다’며, 촛불행동JKT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던 것 역시 오프라인 모임에 제약조건으로 작동하였다.

피케팅 등에 참여합니다.”

촛불행동 공동창립준비위원 P 인터뷰(데일리인도네시아 2017/10/27)¹²⁾

촛불행동JKT는 시국선언 이후 온라인 연대를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오다 1년 뒤인 2017년 11월 창립 출범식을 갖는다. 느슨한 연대공동체에서 조직(會)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한 것이다. 모임의 활동이 공유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클럽(네이버 밴드)의 가입자는 총 182명(출범시점)이며, 이 중 연회비를 내는 정회원의 수는 50~60명 선이다. 직업군으로는 남성 자기사업자, 여성 주부, 유학생이 가장 많고, 연령대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지만 소위 386세대가 가장 많다. 좁은 동포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교민들과 젊은 주재원들이 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탄핵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위해 모였지만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조직화’를 결심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 조직이 지속적 활동을 위해 구성원 체계를 정립하고 정식 단체로 재출범한 이유는 아래의 창립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12) 김주명(2017)“인터뷰: 박준영 ‘촛불행동’ 공동창립준비위원” (<http://www.dailyindonesia.co.kr/news/view.php?no=16015>)

〈표 1〉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창립 선언문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창립 선언문

2016년 겨울, 광장의 촛불은 우리 사회를 억누르던 짙은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였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민주 동포들도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촛불 행렬에 동참했다. 그 후 1년, 꾸준히 늘어난 희망의 불씨로 이제 더 넓게 밝히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박찬 심정으로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을 창립한다.

촛불 혁명 이후 권력의 최고 상층부만 바뀌었을 뿐 적폐세력이라 지적받던 핵심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동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애초에 촛불 광장의 외침은 나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겨 방관하지 않겠다는 주체적 외침이었다. 우리는 국내외 사회를 밝히는 촛불의 주체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짐을 유지하기 위해 견고한 연대로 나아간다. 우리 사회의 진실, 정의, 평화, 민주 가치와 나의 몸과 마음이 서 있는 사회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의연한 마음으로 계속 전진할 것을 선언한다.

2017년 11월 11일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이처럼 촛불행동JKT는 조직화의 이유를 촛불항쟁과 정권 교체를 이뤄낸 주체로서 이후 '정상성 회복'을 위한 민주 시민의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것이라 밝힌다. 이들은 이미 1년의 시간 동안 탄핵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5·18민주화운동, 경제 민주화, 노동, 일본군 '위안부'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¹³⁾

13) 활동 주제 선정은 특정한 정파적 입장에 관계없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토론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했던 활동들(예: 양심수 석방, 페미니즘 등)은 공동의 활동 주제로 선택되지 못했다.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문재인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활동에는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초기 목적이었던 탄핵이 달성된 이후 채택된 단체 활동 주제는 주로 세월호로 대표되는 안전 문제, 역사 왜곡 등 박근혜 정권 당시 실정으로 여겨지던 사안에 집중됐다.

창립과 더불어 촛불행동JKT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코리안넷에 재외동포단체로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치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이들이 피부로 느낀 변화는 본 단체의 목소리가 일부의 편향된 목소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꼽는다. 일례로, 촛불행동JKT는 창립 출범식 장소로 한인 기관인 한국문화원의 강당을 대관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어려움 없이 장소 사용을 승인받았다.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국가 공공기관이다.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당시 구성원들은 정권 교체 이후 일어난 ‘정상성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였다.

4) 자카르타에서 경험한 ‘작은 통일’

앞서 언급했듯 새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스포츠 부문에서 시작되었다.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5월 남북은 탁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단일팀을 이뤄 출전하며 스포츠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또 다른 국제 스포츠 행사가 예정되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이 그것이었다. 행사를 앞둔 6월에 개최된 남북체육회담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복수의 단일팀 구성과 개/폐막식 공동입장이 합의되었다(연합뉴스 2018/06/18).¹⁴⁾ 아시안게임이 예정된 2018년 8월은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직후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적 관심이 모아지던 시기였다. 인도네시아 동포사회는 평창올림픽의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의 장면들이 자카르타에서도 재현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촛불행동JKT는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재외동포 공동응원단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활동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선수단 일정 파악 등 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이에 공동응원단 활동을 위한 특별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협력 채널과 논의를 시작하였다. 촛불행동JKT가 다른 단체들로부터 ‘협력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카르타에서 남북공동응원단 조직의 가능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촛불행동JKT는 과감하게도 인도네시아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필자: 어떻게 북한대사관에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P: 자카르타에서 이런 중요한 스포츠 행사가 열린니까, 남북 재외동포 공동응원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해외고 인도네시아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남한대사관이 함께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 가족들로 한정되더라도 북한 교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게 그냥 될 거 같았어요. 여기서는 북한식당에 갈 수도 있고 북한 교민인 식당 종업원들과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14) 연합뉴스(2018) “남북체육회담 공동보도문. 체육협력교류 활성화”(https://www.yna.co.kr/view/AKR20180618158200005)

필자: 북한대사관과 연락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P: 처음 전화했을 때는 연결 담당자를 계속 바꾸는 등 그쪽도 우리의 제안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그쪽이나 처음 있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대사관과 국정원을 통해 북한 주민 접촉이 가능한지를 건건이 물어봐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북한대사관에 재차 요구하자 그쪽도 진지하게 검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시안게임 시작 전까지 공동응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촛불행동JKT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응원 용품 제작업체 섭외 등 현지 거주 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였다. 현지에서 공동응원단 구성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북한대사관과의 연락망은 확보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북한 선수들의 입국 일정과 북측 응원단의 응원 일정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합의가 불발되었음에도 경기일에 남북 동포가 같은 응원석에서 사실상의 공동응원단 구성을 가능케 만들었다. 이 상황은 국내의 대북민간협력단체들에게도 폭넓게 공유되었고, 국내에서는 ‘2018 아시안게임 원코리아 공동응원단 조직위원회’의 이름으로 140명의 응원단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다(한겨레 2018/08/13).¹⁵⁾

아시안게임 기간 중 남북은 여자 농구, 조정, 카누 등 3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수상경기는 또 다른 개최지인 팔렘방에서 열렸

15) 최민영(2018) “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원코리아’ 됐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484.html)

〈그림 3〉 남북공동응원단 활동과 폐막 후 북한대사관 방문



자료: 경향신문(2018/08/15)

자료: 오마이뉴스(2018/09/05)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응원단의 응원전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여자농구경기로 집중되었다. 2018년 8월 15일, 개막식보다 3일 먼저 시작된 여자농구 단일팀의 첫 경기가 치러진 봉카르노실내체육관에는 묘한 긴장감이 넘쳐났다. 여자농구팀도 남북 간에 사실상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보는 장이었고, 인도네시아의 남측 교민과 북측 교민이 응원전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었다. 경기는 큰 격차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가 북측 선수의 선전으로 가능했기에 남북 응원단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였다. 남북 단일선수단뿐 아니라 관중석에 뒤섞여 앉은 남북응원단의 공동응원도 국내외 언론을 통해 빠르게 타전되었다. 이후 경기가 거듭되면서 남북의 재외동포들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져 갔다.

북측 올림픽 위원회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근처 호텔에 북측 올림픽 홍보관을 만들어 운영했는데, 이곳에서는 북측 체육 관련 기념품을 판매하고 평양냉면과 대동강 맥주를 판매했다. 남과 북의 두 응원단은 응원이

끝난 후 함께 홍보관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으며, 안광일 북한대사도 이곳을 방문하여 ‘자카르타평화서포터즈’의 활동을 격려했다. 촛불행동JKT는 북측 선수단의 요청으로 선수들을 위해 한국 음식을 선수촌으로 보내기도 했다.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에는 대회 기간 활동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북측 대사관의 공식초청을 받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민간인으로 해외의 북한대사관 공관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다.

여자농구 단일팀은 평화를 상징하는 팀이면서 은메달을 딸 정도로 기량도 훌륭해서 국내외 언론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응원단은 경기장 주변에서 언제나 언론의 취재 대상이었고 대회 기간과 대회 후에도 국내 신문, 라디오 등 다수의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공동응원에 참여한 촛불행동JKT의 구성원들은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특히 외신의 인터뷰에서는 외국어 가능한 구성원들이 공동응원에 담긴 ‘평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더불어 촛불행동JKT는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를 주축으로 한 ‘아시안게임민관합동위원회’의 회의에 초대되거나 응원전을 위해 공식적으로 좌석 티켓 비용을 지원받는 등 주요 한인 협력 단체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다.

이들의 활동지역이 인도네시아라는 점은 한계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의 민관이 자주 접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계산과 배려’가 있었다.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9년 재선 유무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은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남북 간의 평화적 만남은 대회 흥행 요인 중 하나였다. 실제

로 조꼬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시안게임에 공식 초청 의사를 밝혔다(The Jakarta Post 2018/07/18).¹⁶⁾ 이런 측면에서 재외동포 남북공동응원단을 조직한 촛불행동JKT의 활동은 단지 한반도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시아 차원의 평화라는 보편가치를 위한 활동으로 승화되었다. 한반도 지도를 활용한 응원 도구를 본 외신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응원단을 취재했고 세계적으로 통일을 원하는 한 민족의 바람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모습이 부각 되었다.

5) 민족국가의 과제에서 보편적 가치로: 국제연대의 모색

촛불행동JKT가 국외단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은 국제적·다문화적 요소를 내포한다. 이 단체의 초국적 연대는 크게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도네시아 안의 이주민이 결성한 단체로 거주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시민사회와의 교류이다. 공식 출범 후 촛불행동JKT는 한국의 현대사를 주제로 여러 활동을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자카르타에서 〈5·18 민주화운동 국제 사진전〉(2018년 5월)을 개최한 것이다. 이 사진전은 자카르타 거주 한인인 아니라 현지인을 주 관객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16) Suherdjoko(2018), "Indonesia to invite Kim Jong-un, Moon Jae-in to attend Asiad"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8/07/18/indonesia-to-invite-kim-jong-un-moon-jae-in-to-attend-asiad.html>)

사진전 개최 장소가 현지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도네시아 예술 박물관(Museum Seni Indonesia)으로 정해졌고, 자카르타의 빈민구호단체인 ‘UPC(Urban Poor Consortium)’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UPC의 대표인 하피즈(Wardah Hafidz)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518재단이 수여하는 광주인권상의 2005년 수상자로, 이 단체에서는 5·18민주운동을 아시아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촛불행동 JKT는 UPC의 활동가들과 접촉하며, 5·18민주화운동 전개과정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영문과 인도네시아어로 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518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했다. 2019년 5월에는 보다 큰 장소인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Museum Indonesia)에서 제2회 <5·18민주화운동 사진전>이 개최되면서(한국일보 2019/05/18),¹⁷⁾ 촛불행동JKT와 UPC의 정례화된 공동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 다른 국제연대의 축은 다른 국가에서 활동하는 한인단체와 교류하는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활동이다. 촛불행동JKT가 탄핵 이후 처음 선택한 활동 영역이 바로 세월호다. 이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쌓인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일”이었고, 세월호 관련 활동은 이들의 단체명에 첫머리에 자리할 정도로 핵심적인 이슈였다. 촛불행동JKT가 탄핵 촛불항쟁에 참여하며 가장 먼저 접촉한 단체도 ‘416해외연대’인데, 이 조직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해외 한인들이 추모, 기억 활동을 위해 조직되고 유지되어온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17) 고찬유(2018) “인도네시아서 5·18 사진전. 광주는 민주 뜻하는 공용어예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71494361630>)

416해외연대의 활동은 대체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정권 교체 이후 서울시장을 만남을 계기로 촛불행동JKT는 416해외연대의 소속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제안하였다. 행사는 2017년 10월 성사된 ‘서울포럼’으로, 11개국에서 20여 지역에서 조직된 재외한인단체 대표자 38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오마이뉴스 2017/11/06).¹⁸⁾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포럼에서는 재외 촛불단체들과 국내 시민단체, 유가족, 정당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이 만남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해외 한인사회운동단체들의 초국적 연대체인 <S.P.Ring 세계시민연대>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 단체의 이름은 세월호(s)-한반도 평화(p)-국제연대(Ring)의 의미를 담아 명명되었다.¹⁹⁾

이상의 초국적 연대 활동은 촛불행동JKT가 원거리 민족주의 실현을 넘어 세계시민성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활동 모두 국제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기에, 비록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문제이지만 자연스럽게 민족국가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 가치로 재의미화 할 필요가 있었다. 즉, 촛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로, 세월호 참사는 인권과 안전의 가치로 확대되었기에 초국적 연대도 가능할 수 있었다.²⁰⁾

18) 전희경(2018) “4.16해외연대, 진실의 길에 동행한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4392)

19) 2018년 3월 21일 결성된 <S.P.Ring세계시민연대>는 현재 체계적, 지속적 연대 활동을 위해 국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중에 있다.

20) 다만 정상성 회복의 주체로서 역할을 위해 모인 구성원들이 새로운 미래 가치에 동의하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고 여전히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지점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적 문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당위에는

4. 재외동포 사회의 풀뿌리운동으로서의 의의

1) 정상성을 향한 '원거리 민족주의'

촛불행동JKT에게 촛불항쟁 이후 생겨난 정상-비정상 구분은 활동의 가장 강력한 동인이었다. 스스로를 정상 집단이자 정상성 회복의 주체로 인식하는 촛불행동JKT의 주요 활동 주제는 적폐 청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평화통일 등 이전 정권의 실정(失政)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정상성 회복을 연결고리로 이어진 현 정권과 심리적 연대는 촛불행동JKT가 이전 정권의 탄핵을 요구하는 일시적 조직에서 지속성을 갖춘 공식 단체로 출범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나아가 비정상 집단의 실정이 드러날 때마다 촛불행동JKT가 갖는 도덕적 우월성이 강화됐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도 강해졌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활동은 글로벌 한인으로 민족적 정체성에 기반한 원거리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서영표(2017)도 지적하였듯, 촛불 시위대가 '그들과 다른' 상대적 정상성을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이 준법과 비폭력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원위치로 회복에 만족하는 한계를 보인 바 있다. 촛불행동JKT에게도 정상 집단이라는 자기인식은 조직화 및 활동을 지속하

동인하는 편이지만, 민족-국가의 구체적 주제가 보편적 가치로 확대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촛불행동JKT의 활동 주제로 제안되는 과정에서는 반대의 견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게 만드는 주요 동인이었지만 이는 활동 영역의 확장에 한계가 되기도 했다. 느슨한 공동체였던 촛불행동JKT의 구성원들 간에 정상성이 범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노출되며 종종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토론되지 못한 채 잠복해 있다. 따라서 촛불행동JKT는 스스로를 정상성 회복에 복무한 단체라는 자기규정은 있지만, 정상성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불안정하고 느슨한 정체성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2) 먼저 온 통일 체험: 자카르타평화서포터즈

촛불행동JKT의 자카르타평화서포터즈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촛불행동JKT에 큰 자극이 되었다. 이 특별활동은 활동의 지속기간, 참여 인원, 예산 등의 측면에서 촛불행동JKT가 펼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었으며, 조직의 정체성 차원에서도 원거리 민족주의 실천을 넘어 세계 시민되기로 확대되어가는 과정 안에 위치한다. 2018년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이후 이어진 평창올림픽에서의 스포츠 및 문화 교류, 남북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관계는 급진전하였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촛불정부의 과제라 여러 차례 밝혔고, 촛불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응답했다. 촛불행동JKT 구성원들도 5·24 조치로부터 시작되어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긴장 대치, 전쟁 위기 상황을 촛불항쟁 이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이 활동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고 활동이 실제로 펼쳐지자 촛불행동JKT 구성원들은 이 활동이 민족국가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 평화를 지향하는 활동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이 당사자인 남과 북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음을 증언한다. 그래서 대회 기간에 마주치는 관중과 외신 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남북단일팀 결성의 의미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다. 또한, 촛불행동JKT는 다른 해외 지역 한인단체들에게 응원 현수막 제작 등을 요청하며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한다'는 메시지의 전달과 확산을 시도하였다.

이 활동은 촛불행동JKT가 정상성 회복의 주체로 원거리 민족주의 실현을 넘어 세계시민되기 실천으로 나아가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카르타평화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촛불행동JKT의 활동을 보편적 가치로 확대시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였고 이러한 방식의 활동이 재외한인단체의 역할이라는 점도 깨달았다. 이 활동 이후 촛불행동JKT는 기존에 이어오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인도네시아 현지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3) 세계시민되기 실천

촛불행동JKT의 세계시민되기 실천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거주국

의 구성적 시민으로 현지시민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문화적 경계를 가로 지르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한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한 세월호 참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드러내고 보편적 안전과 인권 문제로서 이를 호소한 것이다. 촛불행동JKT는 거주국의 현지 시민들에게 <5·18 민주화운동 기념 사진전>과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응원단>을 계기로 접촉하고 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를 설명하는 언어와 논리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했다. 촛불행동JKT는 이 과정에서 탄핵 활동을 ‘민주주의 수호 활동’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안전과 인권을 위한 활동’으로, 남북단일팀 응원 활동을 ‘아시아의 평화 증진 활동’으로 재의미화했다. 이러한 언어개발과 의미 전유를 바탕으로 촛불행동JKT와 현지 시민사회 간의 초국적 연대가 가능해질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대의 경험이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재외한인사회와 국내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국제적 활동이 연쇄적으로 펼쳐지기도 했다. 이러한 호응은 다시 촛불행동JKT를 향한 응원이 되어 현지 사회와 초국적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거주국의 활동에 더욱 매진하게 만드는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에서 탄핵 이외에 세월호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는 초국적 연대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 재외동포들의 일상생활에서 소셜미디어의 중요성과 역할은 이미 중차대하다. 특정 국가 및 여러 지역의 동포사회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복잡하게 두터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에 촛불행동JKT도 416해외연대라는

초국적 네트워크에 비교적 수월하게 합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온라인 네트워크는 촛불행동JKT의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 타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대체로 신분상 제약이 따른다. 인도네시아의 동포들도 체류를 위해서는 노동비자나 학생비자 등 특별한 증빙을 요구받으며, 이러한 증빙은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칙적으로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촛불행동JKT의 구성원들은 장기체류 외국인으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고, 단체에서 전개한 활동들이 인도네시아 안에서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촛불행동JKT가 적극적으로 <S.P.Ring세계시민연대>라는 초국적 연대체의 결성을 주도한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²¹⁾ 온라인상의 활동은 이주민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글로벌 한인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국제연대 활동은 양방향적이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안전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국제적 차원과 현지사회에서 동시에 통용되도록 번역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촛불행동JKT는 국제연대의 매개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물론 촛불행동JKT의 세계시민되기 실천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보편적 개념으로 재생산하고 확산하는 데에 머물렀을 뿐 글로벌 혹은 거주국의 로컬 이슈를 한인 커뮤니티 혹은 한국사회의 문제로 수용하고 재해석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 다시 말해, 촛불행동JKT는 현지 사회의 문

21) 현재 이 글로벌 연대체의 사무국을 촛불행동JKT의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다.

제 또는 우리 국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세계적 문제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고 볼 수 있다.

5. 정리하며

이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사회의 시민단체인 촛불행동 JKT의 활동을 원거리 민족주의와 세계시민되기라는 이론적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문에서는 이 단체의 약 2년 7개월간의 활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활동의 주요한 특성을 드러내는 다섯 개의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 연구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인 시민단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남북단일팀 응원과 지원활동을 펼친 이 단체의 경험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재외동포의 위치와 역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라는 특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채 3년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 기간은 단체의 활동을 분석하기에 다소 부족한 기간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열쇠말인 ‘원거리 민족주의’와 ‘세계시민되기’가 과도할 수도 있다는 지적 역시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다. 원거리 민족주의는 모국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헌신이라는 긍정적 방향뿐 아니라 이주자들이 거주국 사회에 융합되지 못

한 채 통신기술에 힘입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으면서 모국의 문제에 몰두하는 부정적 방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Anderson 2006). 또한, 이 단체의 활동주제가 여전히 한국사회의 과제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되기의 실천으로 보는 것도 과잉해석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필자들은 촛불행동JKT의 활동은 재외동포 풀뿌리 운동의 관점에서 모국의 사회운동과는 구별되는 조직화와 실천의 가능성을 지녔다고 여기며, 그 자체로 기록되고 그 함의를 규명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주동진·김성주(2016)는 국가 주도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가 확대되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전제한 후 현대 사회에서 비전통적안보 이슈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이제는 다중심적 외교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다중심적 외교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있어 새로운 외교적 자원으로 NGO 등의 비정부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은 재외동포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인 촛불행동JKT의 활동에도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한국사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호소할 때 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심화를 고려할 때, 공식적인 정부 대 정부의 상호작용을 넘어 시민사회 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촛불행동JKT를 비롯한 해외 한인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은 각 단체를 운영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서도 보다 전향적이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촛불행동JKT는 현재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다시 '정체성 정립'의 과제에 마주하

고 있다. 출발점이 된 정상성 회복을 위한 원거리 민족주의의 발현은 단체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다. 그러나 '정상성'이라는 추상적이며 상대적인 목표는 구성원 각자가 상이한 정상성을 상상하게 만들었고, 이는 종종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다소 갈등이 예상되더라도 '어떤 정상성'을 회복하는 단체인지를 먼저 정립하는 내부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단체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정상성의 범위가 원거리 민족주의로만 환원될 경우 또 다른 과제에 봉착할 수 있다. 촛불행동JKT는 물리적으로 재외동포 단체이며 거주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하는 구성적 시민들의 결사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촛불행동JKT가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해 왔던 '세계시민되기' 정체성과의 연결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촛불행동JKT의 활동은 글로벌 한인으로 국가와 민족적 주제를 보편적 가치로 확대시키며 인도네시아 현지사회 및 글로벌 한인단체들과의 연대로 이어졌다. 또한, 세계시민성 실천을 위해 활동 주제를 보편적 언어로 재구성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내부의 갈등을 완화하거나 외국인이기에 제약이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발언할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아직까지 촛불행동JKT의 활동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문제를 글로벌과 로컬을 향해 번역하고 공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세계시민성의 실천보다는 세계시민 '되어가기(becoming)'의 한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촛불행동JKT의 활동이 민족적 과제의 번역과 확산을 넘어 로컬 과제의 수용과 재번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슈 혹은 다른 민족과 국가의 문제 역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쌍방향적 또는 순환적 세계시민성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기대해본다. ~~다~~

참고문헌

- 김남준·박찬구. 2015. “세계화 시대의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성: 어떤 세계시민주의? 어떤 세계시민성?” 『연구윤리』 105. 1-34.
- 김동춘. 2017.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 정치의 새 국면.” 『황해문화』 3월호. 202-220.
- 김상준. 2017. “2016~17년 촛불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목표: 독재의 순환고리 끊기와 한반도 양국체제 정립.” 『사회와 이론』 31. 63-90.
- 김윤철. 2017. “촛불항쟁과 시민교육의 과제: 마지노선 민주주의와 방어적 자발성 넘어서기.”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33.
- 문경희. 2018. “호주 한인들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 ‘위안부’운동-‘코스모폴리탄’ 기억형성과 한인의 초국적 민족주의 발현.” 『페미니즘 연구』 18(1). 47-92.
- 박성진. 2017. “촛불의 시민성: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시민과 세계』 30. 1-25.
- 백낙청. 2017. “촛불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낼까”. 창비 주간논평. <https://magazine.changbi.com/170913-2/?cat=2466>.
- 서영표. 2017. “변화를 향한 열망, 하지만 여전히 규율되고 있는 의식-2016년 촛불시위에 대한 하나의 해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14(1). 65-90.

- 신진욱. 2018.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의 진자 운동, 1987-2017-포스트권위주의와 포스트민주주의 문제의 동시성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39. 55-100.
- 엄은희. 2018. “인도네시아로 간 한인들: 한인 사회의 형성, 분화, 그리고 변화하는 정체성.” 『동남아시아의 한인공동체: 변화와 지속』. 2018년 한국학진흥사업단 해외한인연구사업 학술대회 발표원고(미간행).
- 외교부. 2017. 『재외동포현황 2017』. 외교부.
- 윤인진. 2013. “연속적 이주와 동포사회의 다원화.” 2013년 한인 디아스포라연구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윤지환. 2018. “기억의 초국적 이동과 이민자 집단의 정치: 미국 위안부 소녀상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 393-408.
- 이동연. 2017. “촛불의 리듬, 광장의 문화 역동: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인식적 지도 그리기.” 『마르크스 연구』 14(1). 91-117.
- 이희영. 2018. “이주여성들, 정치를 관통하다 — 재독 한인 여성들의 1970년대 체류권 투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17. 237-286.
- 이희용. 2018. 『세계시민 교과서: 본격 글로벌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지구촌 다문화 인문교양서』. 라의논.
- 주동진·김성주. 2016. “한국외교정책의 과제와 NGO를 통한 대안적 외교패러다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2). 265-302.
- 천정환. 2017. “누가 촛불을 들고 어떻게 싸웠나-2016/17년 촛불항쟁의 문화정치와 비폭력·평화의 문제.” 『역사비평』 118. 436-465.
- 최종숙. 2017.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항쟁 비교: 정당-사회운동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홍성구. 2018.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의 민주적 함의-속의 민주주의와 파수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9. 149-178.
- 황진태·박배균. 2018. “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공간과

사회』 28(3). 166-200.

Anderson, B.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Basch, L. Nina Glick Schiller, Cristina Szanton Blanc. 1993.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Routledge.

Skrbiš, Z. 1999. *Long-distance Nationalism: Diasporas, homelands, and identities*. Ashgate Publishing(Skrbiš, Z. 2017. Routledge).

Abstract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Dynamics in Oversea
Korean Communities**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416 Candlelights JKT in Indonesia

Eom, Eunhui

SNU, Research Fellow

Park, Junyoung

SNU, Graduate Student

From the end of 2016 to early 2017, fierce candlelight protests demanding previous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were held not only throughout South Korea but also overseas by Koreans around the world. This study focuses on the particip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in Indonesia in this international wave of candlelight protest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xt which ignited these overseas Korea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ir formation of the overseas Korean social movement group, the '416 Candlelights JKT,' afte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to engage in activities related to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this overseas Korean grassroots group, which had been organized to be a part of Korea's candlelight protests, came to exert global citizenship and to elaborate on the implication of their activities as a global Korean social movement. To this en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416 Candlelights JKT are described and analyzed in five phases,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ir activities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long-distance Nationalism,' 'pre-experiencing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practicing Cosmopolitanism.'

■ **Keywords:** 416CandlelightsJKT, Overseas Koreans, Social Movement, Long-distance Nationalism, Cosmopolitanism

투고 : 2019/09/30 심사 : 2019/10/16 확정 : 2019/11/08